

TDB 경기동향조사(전국) - 2020년 8월 조사 -

2020년 9월 3일
 주식회사테이코데이터뱅크 데이터솔루션기획부
<https://www.tdb.co.jp>
 경기동향온라인 <https://www.tdb-di.com>

국내경기는 불투명감이 감도는 가운데 약간의 회복경향

~ 개인소비 회복에 기대도, 경기는 보합 경향이 계속될 전망 ~

(조사대상 2만 3,689사, 유효회답 1만 2,000사, 회답율 50.7%, 조사개시 2002년 5월)

조사결과 포인트

- 2020년 8월의 경기 DI는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플러스(0.6포인트)인 29.7로 나타났다. 국내경기는 완만한 회복을 보였으나 약간의 회복에 그쳤다. 향후의 국내경기는 개인소비의 회복이 기대되나 보합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.
- 10개 업계 중 『제조』 및 『운수·창고』 등 7개 업계에서 전월보다 플러스로 나타났다으나 전업계에서 40을 하회하는 저수준의 추이가 계속되었다. 또한 『소매』 및 『농·임·수산』 등 3개 업계는 악화되었다.
- 『훗카이도』 『미나미칸토』 등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플러스, 『큐슈』가 악화되었다. 공공공사의 발주 및 자택 내 소비가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. 한편 독자적인 긴급사태선언으로 인한 생산활동의 억제, 장마와 무더위로 농작물의 생육 등에 악영향이 나타났다. 체감경기가 동일규모 내에서 양극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.

< 2020년 8월의 동향 : 멈춤 >

2020년 8월의 경기 DI는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플러스(0.6포인트)인 29.7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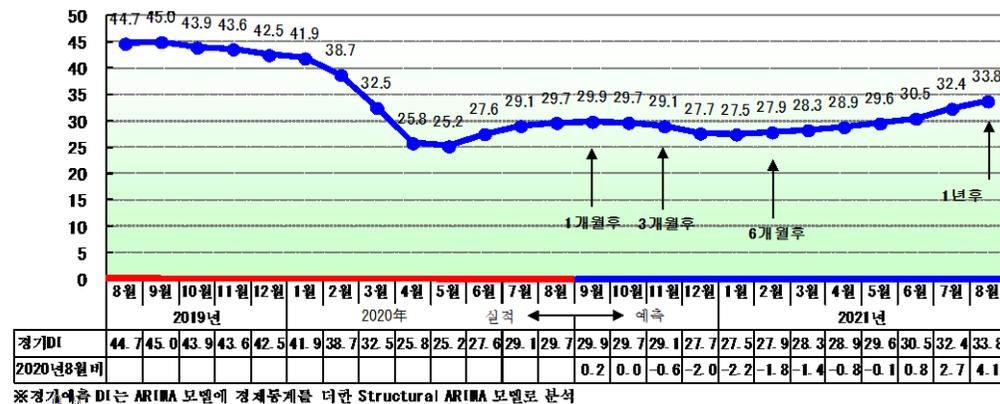
8월의 국내경기는 재개된 경제활동의 회복이 플러스 요인이 된 한편, 지역의 독자적인 긴급사태선언 등이 체감경기를 하락시켰다. 자택 내 소비의 확대 및 새로운 주택니즈의 고조 외에, 국내에서의 자동차부품 생산회복 및 무더위대책상품 제조·판매, 미국·중국 수출 증가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.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과 함께 야채 등의 생육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은 농림수산 및 식음료품 관련에 대하여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. 또한 숙박업을 포함하여 설비가동율은 계속하여 저위 수준으로 추이하였다.

국내경기는 완만한 회복의 움직임이 보였으나 약간의 회복에 그쳤다.

< 향후의 전망 : 보합 >

향후 1년 정도의 국내경기는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의 대응으로 인한 신규수요의 창출이 전망된다. 게다가 관광진흥 등의 각종 소비지원책도 있어 개인소비의 회복이 기대된다. 또한 만회생산 및 공장의 국내회귀 등 자국생산의 확대는 설비투자를 촉구하는 한편, 억제되어있던 수요의 대두화 등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.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및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상황은 최대의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. 또한 기업 업적의 악화에 따른 고용·소득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는 한편, 신정권에 따른 정책 및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행방도 주목된다.

향후의 경기는 개인소비의 회복이 기대되나 보합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.



※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동계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